

전북대, 이공계 미래 동량 키운다

이공학 영재교육원 '오디세우스 프로그램' 시동
반도체·분자생물학 등 11개 분야 12개팀 모집

전북대학교 이공학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이 제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우수 청소년들을 이공학 분야 미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북대와 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 우수 연구진과의 교류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친다.

올해는 고분자·나노공학과·기계 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 전기·전자 공학, 항공우주공학, 화학공학, 반도체, 분자생물학, 지구환경과학, 화학, 농생명 등 11개 분야에서 12개팀을 모집한다.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지도교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7월 1일까지며 전북대 청소년 청의기술인재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stajhn>) 공지사항에 접두된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또는 E-mail(creative@jnu.ac.kr)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들은 오는 9월부터 내년 7월 까지 총 11개월 동안 실습실 연구 활동 체험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게 된

다.

또한 연구활동 종료 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써 참여 학생들의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비전트립(Vision Trip) 참여 기회를 부여해 해외 유수의 대학 연구실 및 기관 체험과 현지 대학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킬 예정이다.

모든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하며 전북대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감 표창과 상품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청소년 청의기술인재센터(이공학 영재교육원) 블로그를 참조하거나 센터 담당자(063-270-3695)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이공학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이 제9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북대-전주대 대학혁신 연차평가 '최우수'

차별화된 프로그램 경쟁력 인정

전북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1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교육 혁신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교育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학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대학 기본역량 강화와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 자율혁신을 통해 미래 창의인재 양성 구축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전북대는 ACE+ 등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사업 등을 통해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쌓아왔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잘 정착돼 있는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전

북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을 학생 맞춤형 교양과 비교과활동 강화, 미래사회 선도 전문인력 양성, 우수학생 유치 등에 우선 투자하고 타 대학에서 찾기 어려운 신입생 4학기제를 활용한 수준별 분반수업과 기초화학인증제 등 기초화학강화 프로그램 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융·복합이 살아 있는 교육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전공교육 강화를 위한 품질 인증제와 이러한 일련의 교육 시스템이 대학원 진학과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드는 이른바 '아너 스튜던트(Honor Student) 프로그램' 등도 차별화 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자율기반대학) 지원 대상 131개교를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 추진 성과와 연차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성·정량평가로 진행됐다. 전주대는 학생 성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비데이터 기반 학생지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양한 교육·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유연한 교육과정인 수퍼스티커리지 융합학부와 대기업 채용 연계 교육과정인 '햅틱신화융합전공'을 개설하고 전북리빙랩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전북형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이호인 총장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 학습지원, 학생성공지원을 통해 전주 대민의 교육혁신 성공사례들을 만들 어가고 있다"며 "학생 및 교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지역사회, 국가가 민족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영성·인성·자성을 갖춘 친의적 실용언제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지난 2017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8년 교육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최고 등급 차등 지원대학,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19년 평생 교육체계 지원사업, 2020년 13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순직 교원 유가족과 김승환 교육감,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장은성 기자

'잼버리 국가대표' 지원하세요

전북교육청, 제1기 63명 모집… 흥보대사 활동 등

전북도교육청이 2023년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흥보대사로 활동할 제1기 잼버리 국가대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63명이며, 초~고3 학생 중 학교대 및 지역대에서 활동 중인 스카우트 대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원은 오는 19일까지 도교육청 담당자 이메일(neotream@jedu.ac.kr)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2023년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까지 흥보대사 역할을 지속할 수 있으면서 대회 참가 의지가 있는 대원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역별, 학교별로 인배해 잼버리 국가대표 운영단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 공문으로

안내되며, 제1기 국가대표들은 7월 8일 잼버리 국가대표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1기 잼버리 국가대표는 2023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대회 흥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관심도를 높이고 참가 대원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특히 잼버리 관련 국제교류활동 참여와 다양한 스카우트 활동 중심 프로그램 체험 기회도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3년 새민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연차적으로 잼버리 국가대표 모집 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2020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운영

전북교육청, 오늘 김누리 교수

주주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본다.

이어 ▲8월 이우종 교사(민주주의를 고민하는 한국사) ▲9월 구본권 기자(가짜와 진짜를 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힘) ▲10월 최호근 교수(우리 시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1월 천호성 교수(민주주의와 문화다양성)가 각각 강사로 나선다.

또 ▲8월 학생참여위원회 토론 ▲12월 민주시민성교육 실천교사회가 주관하는 민주시민 참학력 교육과정 개발 사례나눔 및 토론도 준비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회의 특성을 담은 다양한 주제의 아카데미를 통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상의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34회 순직 교육자 추모제…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

'제34회 순직교육자 추모제'가 12일 오전 10시 전북교육문화회관 내 순직 교육자 추모탑에서 열린다.

순직 교육자 추모제는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육자들의 숭고한 냄새를 기리는 행사로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는 순직 교원 유가족과 김승환 교육감,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부회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추념사와 추도사, 현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이 시대에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교육을 이끌어 가는 참스승상을 정립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문화콘텐츠



TV방송채널

JJC전북
YouTube NAVERtv NAVERTV
Dtv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